

光令里出土 石器와 金海式土器

李 清 圭*

1. 序

濟州島지방의 磨製石器가 알려진 것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이나 대부분 개별적으로 수집되고 그나마 학계에 제대로 보고되어 있지 않고 있었다. 다만 이들 石器가 無文土器와 같이 발견되므로 막연히 靑銅器時代에 속하는 것이라 추측할 뿐이었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방에서 출토하는 石器를 각 지역별로 수집·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여 이 글은 그러한 의도에서 씌어진 것이다.

기록이 전하지 않는 先史時代의 生活相을 충실히 復元하기 위해서는 生活하는 데 一次的으로 필요한 기술적 도구(technofacts)가 체계적

* 濟州大學校 史學科 專任講師

- 1) 李白圭, “濟州島 無文土器에 對한 一考察—濟州島의 考古學的 調查研究 (I)—”, 「考古學」 5.6合輯, pp.141 ~ 162, 1979.

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石器는 이러한 의미에서 重視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그에 대한 연구는 個個 種類別로 따로 이것도 形態論的으로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어떤 한 地域 또는 遺跡에서 同時期에 사용되었던 一括遺物을 종합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形態論的研究와 同時에 機能 혹은 用途를 추정해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야만 石器物을 物質文化 또는 技術文化의 亞體系로서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당시 全體生活相을 復元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이러한 생각에서 筆者는 지금까지 濟州島內에서 個別的으로 수집된 石器遺物들을 정리하기에 앞서 일차적으로 어떤 한 地點의 遺跡에 對해 集中的인 地表調査를 실시하여 일괄로 各種 石器를 수집·分類·整理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調査·整理가 아직까지 濟州島地方 出土石器에 어떤 種類가 있고, 各種類에 있어 다시 어떤 形式이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현 단계에서 더욱 意義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다만 石器의 用途에 대해서는 韓半島 石器文化 전체적 수준에서 구체적이고도 體系的인 研究가 안되어 있으므로 명쾌하게 서술하기가 곤란하며 더우기 이 문제는 여러 지역에 있어서 民族誌的인 자료(ethnographic data)가 충분히 검토된 후에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한계를 이해하고 금후의 많은 수정이 불가피할 줄 알면서도 석기의 용도를 어느정도 확정하지 않고서는 석기 이름 달기와 形式分類는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막연한 추측과 주관적인 용도해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글에서 다루어지는 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遺跡은 기왕에 石器發見例가 있고 支石墓群이 보고된 유적이다.²⁾ 그래서 많은 石器遺物이 발

2) 宋錫範, “濟州島の 支石墓”, 「考古學　ジ　セ　ー　ナル」 No.161, pp.20~22, 1979.

견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사지로 선정되었으며 연 15 일간의 地表調査를 실시하여 60여점의 석기를 수집하게 되었다. 이처럼 수집된 단일유적의 석기일괄유물자료가 앞으로 계속 증가됨으로써 全島수준에서의 石器文化가 밝혀질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따라 이글에서 시도된 형식분류가 수정 보완되고 체계화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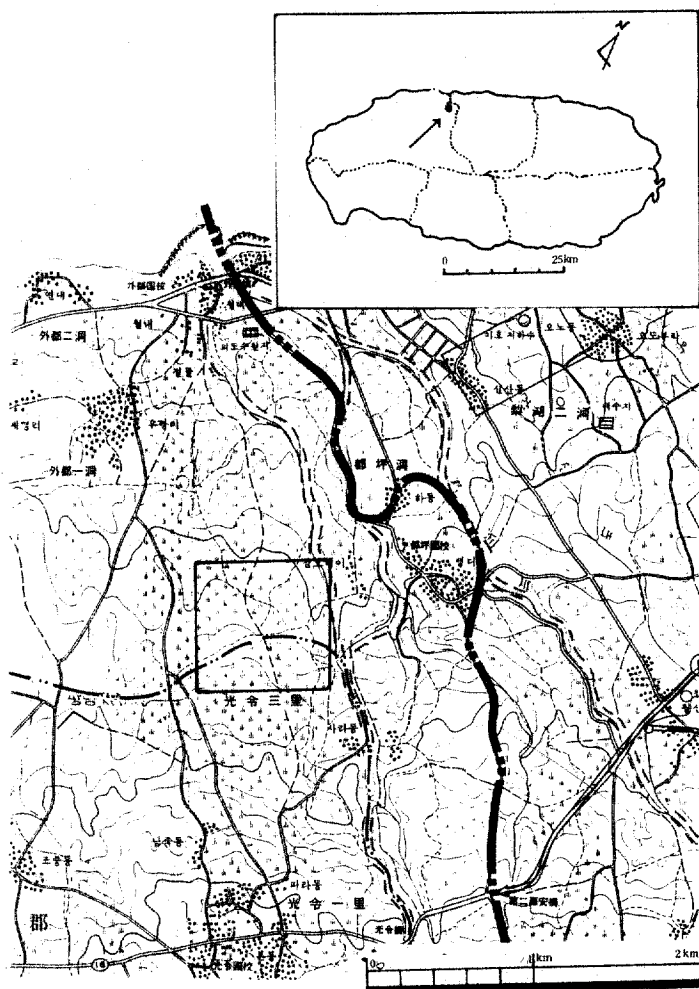
한편 이들 석기유물이 발견되는 곳에는 無文土器와 더불어 金海式土器片이 수집된다. 따라서 同遺跡의 석기유물은 이 지역에 金海式土器가 소개된 이후 즉 初期鐵器時代에 속하는 것이 되며 그러므로 濟州島 磨製石器가 新石器時代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靑銅器時代도 이미 지난 시기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 된다.

光令里遺跡은 그 범위가 이웃 濟州市 外都洞에까지 이르고 대체로 해발 50 ~ 80 m의 완만한 구릉에 위치한다. 土器遺物의 分布를 보면 인근 外都川을 따라 길게 퍼져 있으며 유물분포지 근처 곳곳에는 支石墓가 보인다.

光令里 支石墓群에 대해서는 별도로 報告한 바 있으며³⁾ 따라서 本考는 光令里遺跡에 대해 두번째의 調査노트가 되겠다.

石器는 어떤 한 지점에서만 수집한 것이 아니고 대략 3km 범위내에 두루 살피며 찾아낸 것이다. 그중 石器遺物의 집중 分布地는 직경 1km 범위내였으며 이곳에 또한 支石墓가 밀집되어 있었다 (지도1 參照). 그러므로 지점에 따라서는 보다 시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예가 있으리라 생각되나 石器가 발견된 곳은 반드시 赤褐色 硬質無文土器 및 金海式土器가 같이 발견되므로 이들 각지점의 石器는 대체로 同一時期 것으로 보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지표조사로서는 보다 細分된 時期에 각기 속하는 石器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양상을 이

3) 李清圭, “濟州道 支石墓에 對한 研究 (I) — 光令里支石墓群 —”, 『耽羅文化』 4輯, 1984.



지도 1. 石器遺物 집중분포 지역 (□ 안) 및 遺跡位置 (✓표)

해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 石器의 정확한 출토지점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점은 금후의 연구조사에 의해 보완되어야 될 줄 안다.

그리고 이곳 石器文化의 시기적 단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金海式土器를 아울러 소개하는 것이 必要하므로 따로 章을 내어 同土器에 대해 서술하였다.

二. 石器의 型式分類및 說明 4)

1. 도끼(石斧: axe)

A. 조갯날 도끼(蛤刃石斧)

날부분을 양쪽에서 갈아 세우고 바깥으로 볼록한 곡선을 내어 조갯 모양을 만든 것으로 횡단면이 장타원형을 이룬다.

(ㄱ) (그림 1-①, 사진 1-①)

도끼머리부분을 떼기(flaking) 수법으로 다듬고 몸한가운데를 약간 턱지게 하여 도끼자루를 묶기 편하게 하였다.

길이 9.3 cm, 폭 7.8 cm, 두께 3.2 cm, 粗面岩製

(ㄴ) (그림 1-②, 사진 1-②)

자갈을 이용하여 쪼으기(pecking) 잔다듬을 하였다. 쪼은 자국은 가장자리에 특히 많이 보인다.

길이 10.6 cm, 폭 5.8 cm, 두께 3.7 cm, 염기성맥암製

B. 콩이도끼(敲打石斧)

날형태는 조갯날도끼와 비슷하나 무딘면을 보이므로 보통 도끼와

4) 여기서 사용하는 석기명칭은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84)를 참조하여 붙인 것이며 同文獻에 없거나 애매모호한 것은 필자의 임의로 정한 것이며 이는 금후 보완·수정을 要한다.

달리 공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도끼이다. 2점이 발견되었고 크기와 石質은 서로 다르다.

(ㄱ) (그림 2-①, 사진 1-③)

머리와 날부분의 폭이 같으며 몸통은 전부 조아내기수법으로 대체적인 成形을 한 다음 갈았다. 몸통 가장자리는 턱이 지어져 있다.

현존길이 6.1 cm, 폭 4.8 cm, 두께 3.5 cm, 염기성맥암製

(ㄴ) (그림 2-②, 사진 1-④)

머리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오므라든다. 제작수법은 전자와 동일하다.

현존길이 11 cm, 폭 7.8 cm, 두께 4.8 cm, 砂岩製

C. 찍개도끼(打截石斧)

앞 유물과 마찬가지로 횡단면은 타원형을 이루고 날부분은 양쪽 모두에 작은 격지를 패내어 모양을 만든 것으로 일부 갈았으나 사용할 때 충격으로 파손되었다.

(ㄱ) (그림 2-③, 사진 1-⑤)

날부분을 만들 때 일·이차떼기를 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현재 날부분은 긴 S字 모양으로 굴곡지어 있으며 측면은 磨製수법으로 다듬었다.

현존길이 7.7 cm, 폭 7 cm, 두께 4.8 cm, 安山岩製

(ㄴ) (그림 2-④, 사진 1-⑥)

날부분에 잘게 이차떼기한 흔적을 일부 남기고 갈았으며 몸통은 잔다듬 조으기로 다듬었다.

현존길이 8.8 cm, 폭 6.6 cm, 두께 4.4 cm

D. 맨도끼(打製石斧)

큰 박편을 이용한 것으로 갈지않고 打製手法에 의해서만 성형하였다.

(ㄱ) (그림 3-①, 사진 2-①)

한쪽면은 몸돌에서 떼내어 떨어진 흔적을 그대로 보이며 날부분의 한쪽면은 일차떼기로 다른 면은 이차떼기수법으로 다듬었다.

길이 10.2 cm, 폭 6.1 cm, 두께 3 cm, 석영반암製

(ㄴ) (그림 3-②, 사진 2-②)

역시 한쪽면에는 몸돌에서 떼어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날부분을 일차떼기로 다듬고 측면은 이차떼기 잔손질로 다듬었다.

길이 10 cm, 폭 5.5 cm, 두께 3.1 cm, 석영반암製

(ㄷ) (그림 3-③, 사진 2-③)

자갈 몸돌에서 떼낸 박편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한면은 둥그스럼한 몸돌의 절면이 그대로 남았으며 다른 한면은 평평하게 떼어진 면을 보이고 있다. 날은 일·이차떼기로 다듬었고 외날형식이다.

길이 6.9 cm, 폭 6.8 cm, 두께 2.3 cm, 안산암製

2. 네모도끼(柱狀石斧) (그림 4, 사진 2-④)

1점이 발견되었으며 횡단면이 등쪽으로 곡선을 이룬 네모꼴을 보인다. 가파른 외날을 갖고 있으며 도끼배편의 면도 불룩한 곡선을 그리면서 날에 이른다. 현재 중간이상 머리부분은 없어졌다.

현존길이 6.3 cm, 폭 3.7 cm, 두께 3.8 cm, 응회암(shale) 製

3. 자귀(Adze)

도끼와 달리 날과 수직방향으로 자루를 결박하며 날의 너비가 자귀 등과 배 사이 폭의 반밖에 안된다. 날은 한쪽에서만 갈았으므로 외날 형태를 취하고 있다.

A. 손자귀(그림 5, 사진 3-①)

다른 자귀가 등과 배가 거의 평행을 이루는데 비해 이 손자귀는 머리부분으로 갈수록 넓어질 뿐만 아니라 머리끝을 둥그스럼하게 다듬어

손에 쥐기 편하게 만들었다. 자루를 묶기에는 부적당하며 이점에서 다른 지귀와 구분된다. 배는 불룩하고 횡단면은 장타원형을 반 쪼갠 형태이다.

길이 11.5 cm, 두께 3.8 cm, 폭 6 cm, 安山岩質 粗面岩製

B. 흠자귀(有溝石斧)

자루를 묶기 편하게 배쪽에 흠을 파낸 것이다. 흠은 날이 갈리지 않은 평평한 쪽에 있기도 하고 그 반대편에 있기도 하다.

(ㄱ) (그림 6-①, 사진 3-②)

머리부분이 깨져 없어졌으며 흠이 있는 배쪽이 평평하다. 횡단면은 등쪽이 둥그스름한 장방형이다.

현존길이 10.5 cm, 폭 4.8 cm, 두께 3.3 cm, 粗面岩製

(ㄴ) (그림 6-②, 사진 3-③)

머리와 날부분은 깨져 없어지고 흠이 패인 중간부분만 남았다. 흠이 있는 배쪽으로 불룩하고 날이 있으며 횡단면 형태는 앞서 흠자귀와 같다.

현존길이 8.2 cm, 폭 4.7 cm, 두께 3 cm, 응회암(shale)製

C. 미완성자귀(그림 6-③, 사진 4-①)

일·이차떼기수법으로 자귀모양을 일단 만들었으나 갈아서 마무리짓지 못한 단계의 것이다. 횡단면은 장방형이다.

현존길이 10.5 cm, 폭 4.8 cm, 두께 2.8 cm, 응회암(shale)製

D. 자귀날片

날부분만 남아 있어 손자귀·흠자귀 혹은 턱자귀 어느 部類에 속하는지 알 수 없으나 외날형식이며 날의 너비에 비해 배·등사이 폭이

큰 것을 이에 포함시켰다.

(ㄱ) (그림 7-①, 사진 4-②)

날형태와 岩質이 앞서 손자귀와 거의 같다.

현재길이 6.2 cm, 폭 3.9 cm, 두께 2.8 cm

안산암질조면압製

(ㄴ) (그림 7-②, 사진 4-③)

기본적으로 외날형식이나 나머지 한쪽도 심한 사용으로 날이 曲面처럼 磨滅되었다.

현재길이 6.6 cm, 폭 4.9 cm, 두께 3.5 cm, 砂岩製

(ㄷ) (그림 7-③, 사진 4-④)

중간부분 이상이 부러져 없어졌으며 횡단면이 네모꼴에 가깝다.

현존길이 7.5 cm, 폭 3.9 cm, 두께 3 cm, 응회암(shale) 製

(ㄹ) (그림 7-④, 사진 4-⑤)

두터운 박편을 이용하여 적당히 때내기수법으로 성형한다음 한쪽을 갈아 외날을 만들었다. 반대쪽날이 깨어졌으며 횡단면은 등쪽이 둥그스름한 삼각형이다.

현존길이 7 cm, 폭 3.4 cm, 두께 2.4 cm, 응회암(shale) 製

4. 대패(石鑿)

얇은 박편을 이용한 것으로 길이가 7 cm미만으로 작으며 외날이면서 평평한 것이 특징이다. 이 형식에 속하는 것은 다시 그 石質과 형태에 따라 두가지 類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대 패

비교적 다른 응회암(shale) 박편을 이용한 것으로 장방형의 기본평면형태에 細長한 장방형의 횡단면을 갖고 있으며 등과 배 전면을 손질하였다.

(㉑) (그림 8-①, 사진 5-①)

양측면과 머리부분을 이차폐기 잔손질로 다듬었는데 머리부분은 둥근 곡선을 이룬다. 거의 직선날이고 등과 날의 경계는 뚜렷하며 날 반대쪽의 배는 평평하다.

길이 6.3 cm, 폭 3.7 cm, 두께 1.5 cm, 응회암(shale) 製

(㉒) (그림 8-②, 사진 5-②)

제작수법과 형태가 앞의 것과 동일하나 머리부분은 깨어 없어졌다.

남은 길이 5.6 cm, 폭 3.7 cm, 두께 1.8 cm, 응회암(shale) 製

(㉓) (그림 8-③, 사진 5-③)

앞서 2점과 細部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측면은 磨研하였으며 날은 곡선을 이루면서 등과는 경계없이 완만한 曲面으로 이어지고 배 쪽 또한 볼록한 曲面을 보인다.

길이 7.8 cm, 폭 4 cm, 두께 1.8 cm, 응회암(shale) 製

B 대 패

보다 硬質인 粘板岩(slate) 편암, 석영반암의 박편을 이용한 것으로 평면형태가 사다리꼴을 이루며 몸돌에서 떼어낸 面을 거의 그대로 남기고 있다.

(㉔) (그림 8-④, 사진 5-④)

얇은 박편을 이용한 것으로 측면과 머리부분을 이차폐기수법으로 다듬었으며 날은 곡선을 이루면서 예리하다.

길이 5.5 cm, 폭 3.9 cm, 두께 0.8 cm

(㉕) (그림 8-⑤, 사진 5-⑤)

머리부분 폭이 좁고 날부분이 다소 넓으며 등과 날의 구분없이 이어진다. 횡단면은 장타원형이다.

길이 6.7 cm, 폭 4.4 cm, 두께 1.8 cm, 석영반암 製

(㉖) (그림 8-⑥, 사진 5-⑥)

맨처음 원하는 박편을 떼어낼때 擦切法을 이용한 흔적이 측면에 보인다. 날을 포함하여 측면 머리부분을 전부 이차매기수법으로 다듬었으며 磨研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앞서와 달리 날의 폭이 머리부분보다 넓다.

길이 6.9 cm, 폭 4.1 cm, 두께 1.3 cm, 편암製

5. 돌망치(石槌 : stone hammer)

단단한 固形物을 깰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석기로 한쪽끝 타격면이 평평한 것이 특징이다. 곡물등을 빵을 때 사용되는 공이와 달리 면이 거칠다.

(㉠) (그림 9-①, 사진 6-①)

납작한 장타원형 자갈돌을 이용한 것으로 얼핏 보면 도끼모양이나 날부분이 으깨어지고 무딘 타격면을 보인다.

길이 13 cm, 두께 3.6 cm, 폭 7.3 cm

(㉡) (그림 9-②, 사진 6-②)

횡단면이 타원형인 긴 망치로 머리 부분으로 갈수록 폭이 다소 좁아진다. 머리쪽에도 두들겨서 으깨진 흔적이 보인다.

길이 17.6 cm, 폭 7.3 cm, 두께 4.6 cm, 粗面岩製

(㉢) (그림 9-③, 사진 6-③)

반으로 쪼개졌지만 횡단면이 타원형인 긴자루 모양의 망치임을 알 수 있다.

현재길이 9.6 cm, 폭 6.6 cm, 두께 5.1 cm, 粗面岩製

(㉣) (그림 9-④, 사진 6-④)

역시 半折되었으며 횡단면이 장방형에 가까운 타원형이다. 앞서의 예와 달리 타격면이 장축방향에 대해 비스듬히 成形되었다.

현재길이 9.4 cm, 폭 6.5 cm, 두께 3.5 cm, 安山岩質粗面岩製

6. 원통석기편(圓筒石器片)

횡단면이 타원형으로 中間部位만 발견되고 양끝이 없으므로 전체적인 형태를 확실히 모른다. 그러나 도끼 혹은 돌망치의 일부분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각각의 형식에 소속시킬수도 있으나 일단은 따로 기술하고자 한다.

(ㄱ) (그림 10-①, 사진 7-③)

비교적 납작한 타원형의 횡단면을 보이는 것으로 全面을 갈았다. 도끼파편으로 추정된다.

남은길이 5.9 cm, 폭 5.6 cm, 두께 3.4 cm, 석영반암製

(ㄴ) (그림 10-②, 사진 7-④)

한쪽으로 좁고 다른 한쪽으로는 넓어지는 형식으로 全面을 잘게 쪼아 다듬었다. 돌망치일 가능성이 많다.

남은길이 8.8 cm, 현재 폭 6.8 cm, 두께 4 cm, 花岡岩製

(ㄷ) (그림 10-③, 사진 7-⑤)

縱으로도 반이 쪼개졌으며 復元된 전체폭은 10 cm가 넘는 것으로 앞서 大形 공이도끼의 예와 비슷한 모양을 보인다.

현재길이 4.8 cm, 추정전체폭 10.6 cm, 두께 5.3 cm, 화강암製

7. 뿔 돌칼(打製刃)

납작한 박편 및 자갈돌을 이용 일·이차떼기 수법으로 다듬어 날을 만든 것이다.

(ㄱ) (그림 11-①, 사진 7-①)

박편을 일차떼기수법으로 반자른 半月形石刃 모양으로 다듬고 날부분을 2차 엇갈림떼기 수법으로 調整하였다. 등부분은 크게 타격을 가하여 박편을 떼어냄으로써 1.2 cm 폭의 면을 만들었다.

길이 10.4 cm, 폭 7.3 cm, 두께 1.4 cm, 粘板岩(slate) 製

(ㄴ) (그림 11 - ②, 사진 7 - ②)

납작한 자갈돌을 이용한 것으로 자르기와 찌기를 겸용하기 위해 한 쪽은 날을 예리하게 한쪽은 무디게 만들었다. 사용부분만을 일·이차 떼기로 다듬고 나머지는 자갈돌 自然面을 그대로 남기고 있다.

현제길이 9.7 cm 폭 8.2 cm 두께 2.8 cm 粗面岩製

8. 돌추(石鐘) (그림 12. 사진 10 - ①)

타원형의 평평한 자갈돌의 양끝을 꺼내어 오목하게 함으로써 끝을 묶을 수 있게 한 錘이다. 그물추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용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길이 9.1 cm, 폭 7.6 cm, 두께 2.9 cm, 粗面岩製

9. 磨石 (그림 13. 사진 10 - ②)

둥그스럼한 자갈돌로서 가장자리의 表皮(cortex)가 갈려서 벗겨진 것으로 토기 걸면을 매끄럽게 다듬을 때 이러한 石器가 사용될 수 있겠다.

지름 7.8 cm, 두께 5.5 cm, 粗面岩製

10. 흠돌(凹石)

자갈돌 양면 혹은 한쪽 한가운데가 우묵지게 한 것으로 두들기거나 갈아서 잘게 빻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ㄱ) (그림 14 - ①, 사진 10 - ③)

원판형에 가까운 자갈돌 양면 한가운데를 오목지게 한 것이다.

지름 10.7 × 9.2 cm, 두께 5.3 cm, 폭 9.5 cm, 粗面岩製

(ㄴ) (그림 14 - ②, 사진 10 - ④)

원래 앞서와 같이 원판형 자갈돌인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 깨어지고 한쪽면만 남았다.

지름 10.7 cm, 현존두께 3.5 cm, 粗面岩製

11. 몽 돌

굵직하고 두툼한 자갈돌의 양끝을 갈아 곡물 또는 육류등을 잘게 빻거나 찢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石器로 앞서 돌망치와 달리 타격면이 曲面을 이루면서 매끈하다.

(ㄱ) (그림 15 - ①, 사진 8 - ①)

횡·종단면이 長方形에 가까우며 양측면을 다듬을 때 자잘하게 쪼은 흔적이 보인다. 양끝의 타격면의 磨滅이 심하다.

길이 9.7 cm, 폭 9.3 cm, 두께 6.5 cm, 安山岩製

(ㄴ) (그림 15 - ②, 사진 8 - ②)

종단면은 앞서처럼 장방형이나 횡단면은 타원형을 이룬다. 한쪽끝 타격면은 장축방향에 대해 비스듬하게 成形되었다.

길이 10.2 cm, 폭 7 cm, 두께 4.6 cm, 粗面岩製

(ㄷ) (그림 15 - ③, 사진 8 - ③)

둥그스름한 형태를 갖고 있으며 양끝 빻는 면의 磨滅度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다.

길이 9.7 cm, 폭 9.3 cm, 두께 6.5 cm, 安山岩製

(ㄹ) (그림 15 - ④, 사진 8 - ④)

세로로 반이 쪼개졌으며 양끝의 빻는 면이 붉게 물들어 있어 혹시 짐승고기 등을 찢을 때 씹아온 것이 아닌가 한다.

길이 12 cm, 폭 7.5 cm, 현존두께 3.5 cm, 粗面岩製

12. 확돌공이(蔽石, pestle)

長卵形에 가까운 모양으로 확돌에 곡물을 넣고 빻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추정된다.

(ㄱ) (그림 16 - ①, 사진 8 - ⑤)

횡단면을 보았을 때 한쪽이 다소 납작해진 원형을 취하고 있다. 갈은 현무암製이나 후술한 것보다 입자가 치밀하고 무겁다.

길이 13 cm, 폭 7.3 cm, 두께 6.2 cm, 玄武岩製

(나) (그림 16 - ② 사진 8 - ⑥)

횡단면이 원형에 가깝다.

길이 12 cm 폭 6.2 cm 두께 6.1 cm 玄武岩製

13. 갈판(礮石, metate) (그림 17 - ②, 사진 11 - ①)

필자가 試掘한 Test-pit 内에서 갈돌 14-A (ㄱ)과 짝을 이루어 발견된 것으로 사방에서부터 가운데가 움푹 파인 화돌과 달리 前後로 같은 작업을 하므로 한쪽 방향으로 우묵한 것으로 횡단면은 장방형이 휘인 형태를 하고 있다. 일부가 깨어져 없어졌다. 氣孔이 심하여 겉면이 우둘투둘한 현무암만을 石材로 사용한다.

현재길이 25.5 cm, 폭 15 cm, 두께 8 ~ 9 cm, 玄武岩製

14. 갈돌(石棒)

갈판에 닿는 면이 매끄럽게 갈리어 평평한 것이 특징이며 갈판과 마찬가지로 玄武岩만을 석재로 사용한다. 동일한 갈판중에 비교적 폭이 좁고 두툼한 A型式과 넓고 얇은 B型式으로 구분된다.

A. 갈돌

폭이 8 cm 내외이고 두께는 폭에 대해 0.5 ~ 0.7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어 반타원형 혹은 반원형의 횡단면 형태를 취한다.

(ㄱ) (그림 17 - ①, 사진 11 - ②)

끝부분의 평면형태가 끝부분만 남아 있는데 둥근곡선을 이룬다.

현재길이 9.7 cm, 현재폭 8.6 cm, 현재두께 7 cm, 玄武岩製

(나) (그림 18 - ①, 사진 12 - ①)

중간부분만 남아 있는데 폭에 대한 두께가 0.7로서 가장 두텁다.

현재길이 8.6 cm, 폭 7.3 cm, 두께 5.5 cm, 玄武岩製

(ㄷ) (그림 18-②, 사진 12-②)

끝부분만 남아 있는데 양측면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폭선행태로 연결되지 않고 턱을 형성하고 있다.

길이 7.3 cm, 폭 7.1 cm, 두께 4.5 cm, 玄武岩製

(ㄹ) (그림 18-③, 사진 12-③)

폭에 대한 두께비율이 0.5미만으로 납작한 편이나 그에 비해 폭은 8.5 cm로 넓은 편이다. 중간부분만 남아 있다.

현재길이 10 cm, 폭 8.5 cm, 두께 4 cm, 玄武岩製

B. 갈돌

폭이 10 ~ 11 cm 정도이고 폭에 대한 두께의 비율이 0.5미만으로 A 갈돌에 비해 폭이 넓고 두께가 얇다.

(ㄱ) (그림 19-①, 사진 12-⑥)

한쪽끝 부분이 남아 평면형태가 모를 죽인 장방형에 가깝다.

현재 길이 10.6 cm, 폭 11.4 cm, 두께 4 cm, 현무암製

(ㄴ) (그림 19-②, 사진 12-④)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에 가깝다.

현재길이 11.8 cm, 현재폭 7.8 cm, 두께 3.2 cm, 현무암製

(ㄷ) (그림 19-③, 사진 12-⑦)

중간부분만 남아 있다. 양측선은 평행을 이루며 폭對 두께比가 0.5로서 이 部類中 가장 두터운 편이다.

현재길이 14.6 cm, 폭 11.2 cm, 두께 5.4 cm, 현무암製

(ㄹ) (그림 19-④, 사진 12-⑤)

끝부분의 평면형태는 반원형이고 양측선은 서로 평행을 이룬다.

현재길이 8.4 cm, 폭 10.4 cm, 두께 5 cm, 현무암製

15. 솥돌(砥石)

비교적 작으며 갈리 部位가 움푹하게 파여 있다. 한점은 shale계통이나 두점은 砂岩製이다.

(ㄱ) (그림 14 - ③, 사진 9 - ②)

원래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고 횡단면은 반원형으로 가는 面은 사용에 의해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였다.

현재길이 7.2 cm, 폭 5.4 cm, 두께 3.5 cm, 응회암(shale) 製

(ㄴ) (그림 14 - ①, 사진 9 - ③)

砂岩製로 납작하며 원래는 원판형인 것으로 보이나 깨어져 小片만 남아 있다. 윗면과 측면을 사용면으로 삼았다.

현재길이 5.2 cm, 폭 5.2 cm, 두께 1.5 cm, 砂岩製

(ㄷ) (그림 14 - ②, 사진 9 - ①)

대체로 6面體를 이룬 것으로 4面을 사용면으로 삼았다.

현재길이 5.7 cm, 폭 4.5 cm, 두께 3.9 cm, 砂岩製

*附記—石質에 대한 감정은 일차 濟州大學校 海洋學科 尹正守 教授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는 차후 현미경 조사 등에 의한 정밀분석에 의해 수정될 수도 있다. 바쁘신 중에 잠깐 틈을 내주신 尹教授께 진심으로 謝意를 表하며 同 石器遺物을 수집하는데 애써준 濟州大 史學科 學生들에게도 이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表한다.

三. 金海式土器

金海式土器의 內容과 時期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틀린 것이 현재 學界 실정이다.

金元龍은 서울 風納洞遺跡의 발굴을 통하여 金海式土器및 그와 관련된 土器로 ① 風納里式粗質有文陶 ② 風納里黑陶 ③ 金海式有文陶를 열거·분류하였으며,⁵⁾ 金廷鶴은 熊川貝塚의 발굴결과를 토대로 ① 赤褐

5) 金元龍, 『風納里包含層調查報告』, 서울大學校 考古人類學叢書 3冊, 1967.

色軟質 ② 灰青色硬質 ③ 灰白陶로 分類하였다.⁶⁾ 金暢玉은이두 분류내용을 근거로 ① 粗質灰色土器 ② 赤褐色硬質土器 ③ 灰青色硬質土器 ④ 軟質灰色土器로 4分類하였으며,⁷⁾ 韓炳三·李健茂는 朝島貝塚出土金海式土器에 대해서 ① 赤褐色軟質土器 ② 灰色軟質土器 ③ 灰色粗質土器 ④ 灰青色硬質土器 ⑤ 灰色良質土器로 분류하였다.⁸⁾

최근에 申敬澈·崔鍾圭는 경상도지방의 여러 出土資料를 검토하여 金海式土器라 부르는 土器에 對해서 ① 瓦質土器와 ② 陶質土器로 내용분류하고 ②의 陶質土器는 古墳時代 或은 三國時代에 속한다고 主張함으로써 金海式土器=原三國時代라는 종래학설을 비판하고 나섰다.⁹⁾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광령리출토 金海式土器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여러 형식분류안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이점은 또한 同土器가 層位上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밝혀지지 않고서는 선불리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라 하겠다.

金元龍에 의하면 金海式土器라는 것은 처음에는 재래식 산화염 소성 때문에 赤褐色土器가 主流였다가 차츰 환원염 燒成으로 바뀌어 토기의 색깔은 회청색 또는 흑회색으로 되고 堅度도 금속음으로 나는 炆器로 발전하며 器形으로는 平底鉢과 圓底壺가 주류이고 表面에는 格文·繩蓆文의 타날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¹⁰⁾

6) 金廷鶴 “熊川貝塚研究,” 『亞細亞研究』, 10 輯 4 號, pp.1~63, 1967.

7) 金暢玉, “韓半島 鐵器時代 土器의 研究”, 白山學報 20 號, pp.121~213, 1976.

8) 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 國立博物館 古蹟調查報告 9 冊, 1976.

9) a. 申敬澈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이른바 熊川·金海期土器의 實體와 實例—”, 『韓國考古學報』 12 輯, 1982, pp.39~87.

b. 崔鍾圭,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展開”, 『韓國考古學報』 12 輯, 1982, pp.213~243.

10) 金元龍, 『新羅土器—韓國의 美術 I』, 1981.

광령리에서의 표토채집은 이른바 무작위표본채집이며 이렇게 수집된 유물은 광령리유적의 김해식토기 전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전제에서 수집된 유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파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器腹部片을 보면 회색 및 회청색 계통이 주류를 이루고 흑회색계통이 일부 있다. 굳기를 볼때 硬質이 전 부이고 軟質이나 瓦質계통은 보이지 않으며, 또 한편으로 新羅式 土器와 비슷한 금속음을 내는 炔器質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두께를 보면 얇은 것은 0.4~0.5cm 정도이고 두꺼운 것은 0.7~0.8cm 内外이며 拍子를 두드려서 만든 打捺무늬는 格子무늬, 繩蓆무늬, 集線무늬가 대부분이고 간혹 다른 무늬가 혼합된 양식도 보인다 (그림 21, 사진 13).

口緣部는 3點이 確認되었는데 두점은 입술끝 단면이 삼각형을 이루고 外反하며 한점은 곧바로 올라가다 다소 內反하는 모양으로서 각각 小壺와 盃形그릇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底部 3點이 발견되었으며 전부 平底이다 (그림 22, 사진 14).

한편 속은 밝은 灰色을 띠나 양겉면은 흑색을 보이는 胎土의 土器片을 이용한 직경 5.5cm, 두께 0.9cm의 紡錘車 1點이 발견되었다. 이는 金元龍이 서울 風納洞遺跡에서 確認한 바있는 黑陶系統으로서 굳기 정도는 다소 무른편이어서 瓦質系 硬質이라 할 수 있겠다(그림 23, 사진 13첫째번).

四. 結

이글에서 소개한 石器는 어느 一定한 遺構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아니라 다소 너른 地域에 대한 地表調査에 의해 수집된 것이므로 同一時期 同一集團의 것이라 단정짓기 어렵다.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일단 이곳 光令里一帶에 支石墓-無文土器-磨製石器-金海式

土器로 연결되는 文化가 어느 일정한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把握하고자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한 石器의 내용을 다시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光令里出土 石器類一括은 無文土器末期形式과 金海式土器가 사용되던 시기에 속한다. 金海式土器時代는 이미 鐵器가 소개된 때이므로, 따라서 同石器는 鐵製品이 役割을 하지 못했던 生活部面에 국한해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나무의 벌채 및 原木의 절단 등의 一次的 용도에 사용되는 도끼(Axe)로서 ① 조깅날도끼 ② 찍깨도끼 ③ 땀도끼가 있고 ④공이도끼는 그 사용흔을 보아 다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林木의 成形 및 道具의 제작등의 二次的 용도로는 네모도끼, 자귀, 대패가 있으며,

4. 자귀 경우 ① 손아귀 ② 홈자귀가 있고 특히 홈자귀가 盛行했다는 사실의 確認으로 韓半島 南部地方과의 관련을 엿볼 수 있다.

5. 대패는 응회암(Shale)을 石材로 택하는 경우가 많고 同石材는 濟州島産이 없으므로 그 石材가 産出되는 가까운 한반도 남해안지방과의 交易品中에 이 석재가 包含됨을 가정해 볼 수 있다.

6. 공구류중 푼망치는 원통자루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7. 돌칼종류에 打製手法을 이용한 것이 보인다.

8. 한편 음식물을 깎거나 찢으며 갈거나 하는 調理具로써 石器의 쓰임새가 많았으며 특히 이곳 濟州島産 玄武岩을 이용한 갈돌·갈판이 많이 보인다.

9. 찢거나 깎는 용도로써 두툼한 자갈돌로 만든 몽돌이 있고 그 일부는 짐승의 고기등을 찢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0. 곡물등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① 확돌공이 확돌의 세트(단 확돌은 확인이 안됨) ② 갈돌·갈판 세트가 있다.

11. 그외의 生活用具로서 그물추로 사용했었을 돌추와 토기그릇 걸면
을 調整할 때 쓰였던 磨石, 약초등을 잘게 찧는데 사용했음직한 흙돌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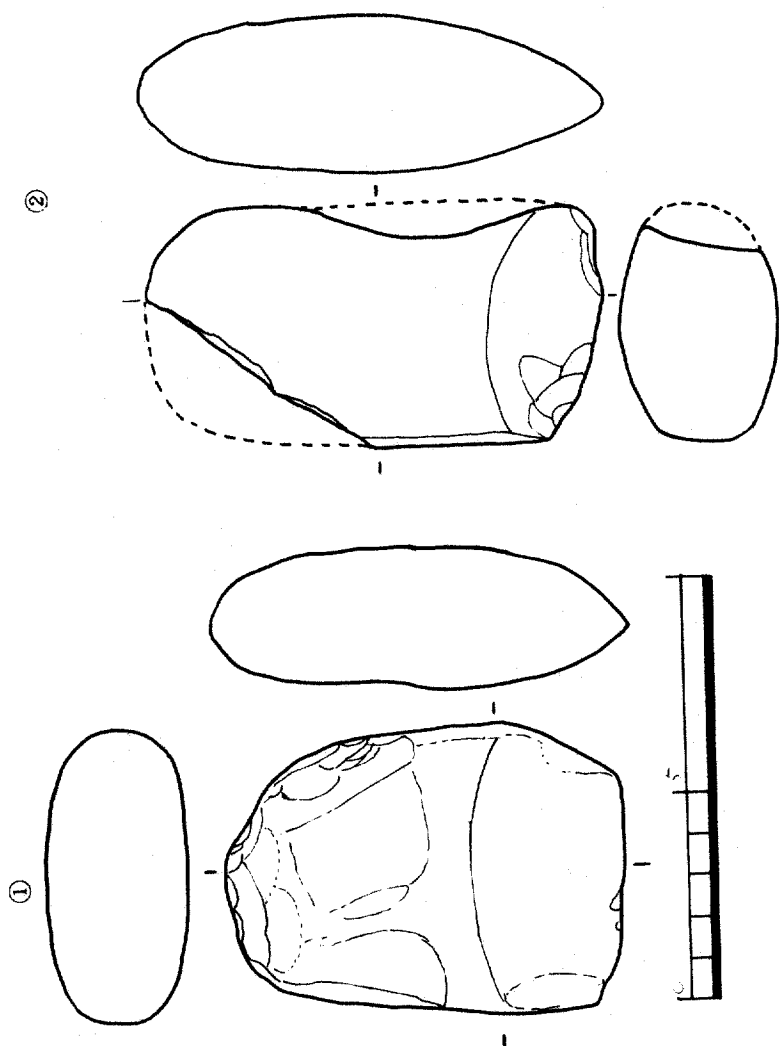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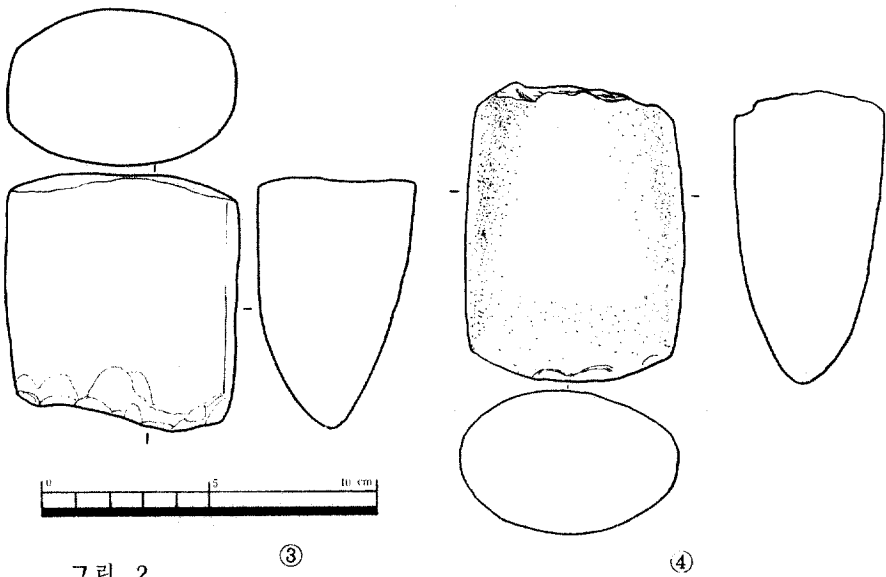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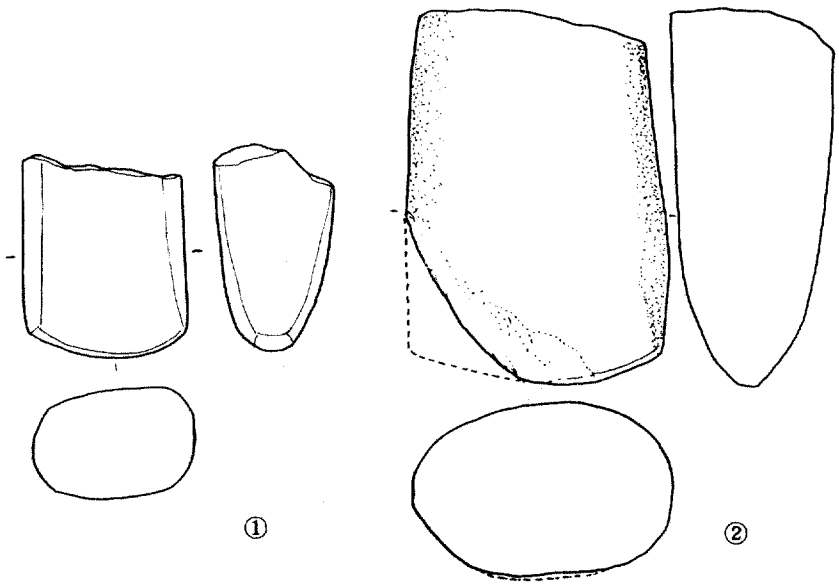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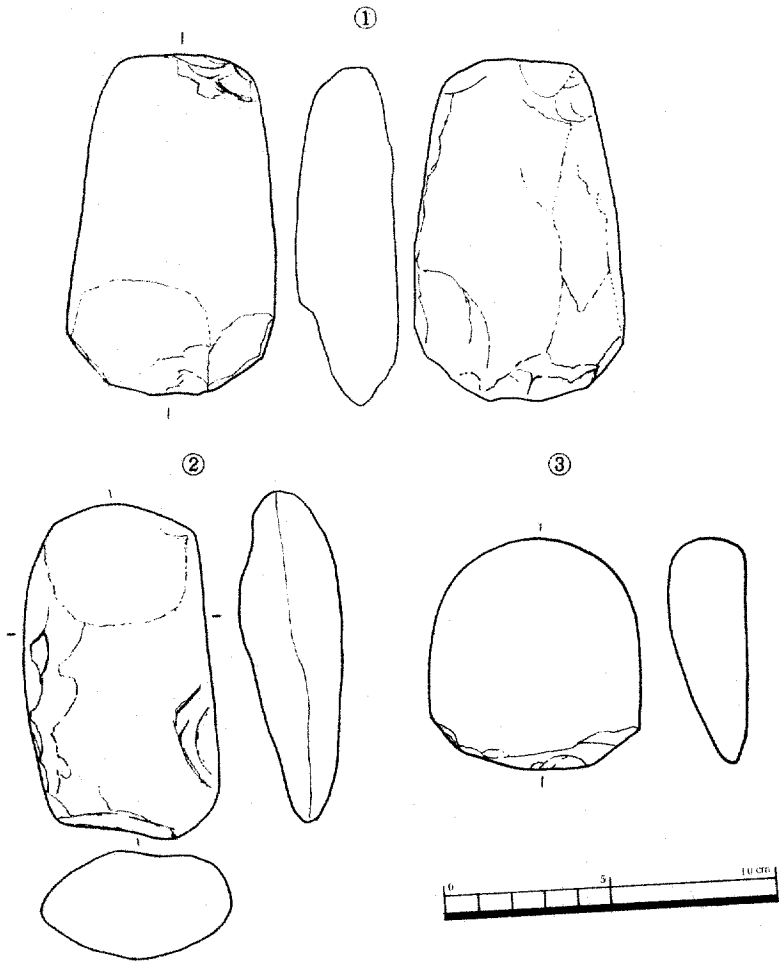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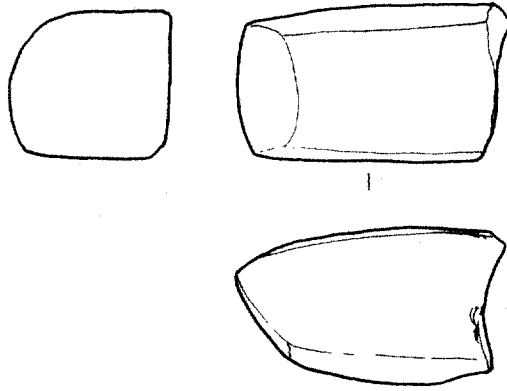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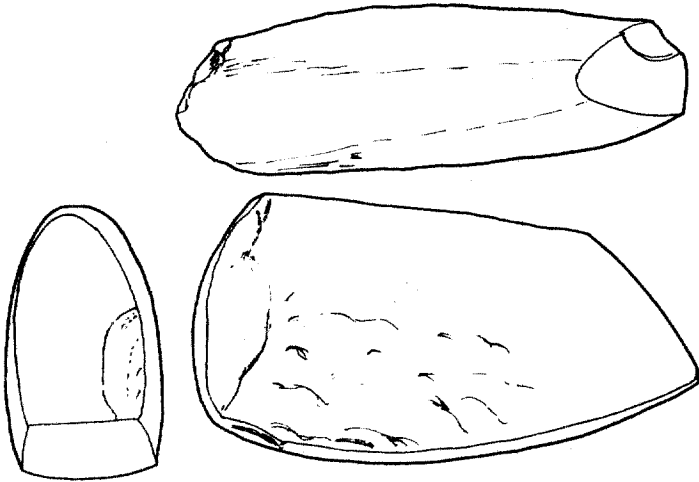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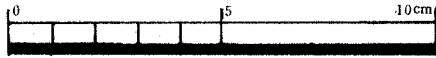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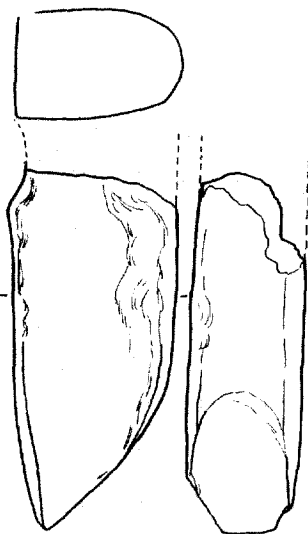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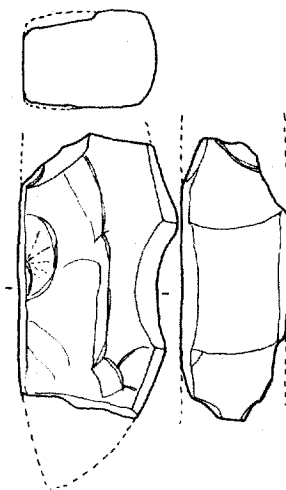


그림 5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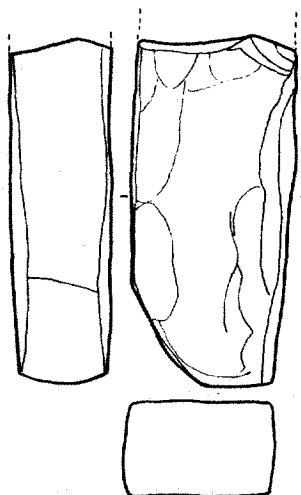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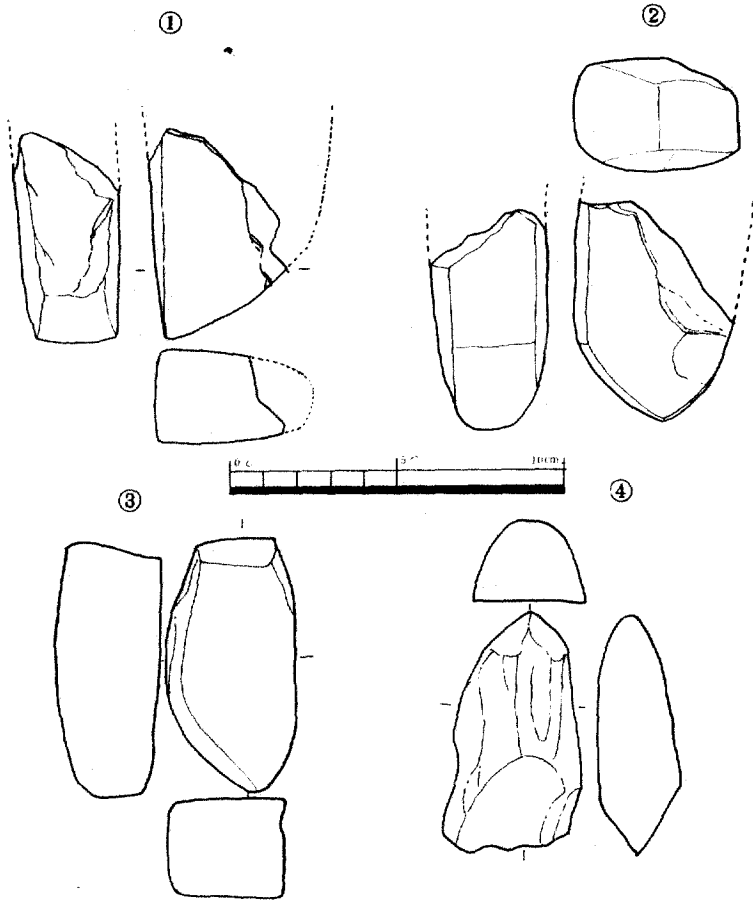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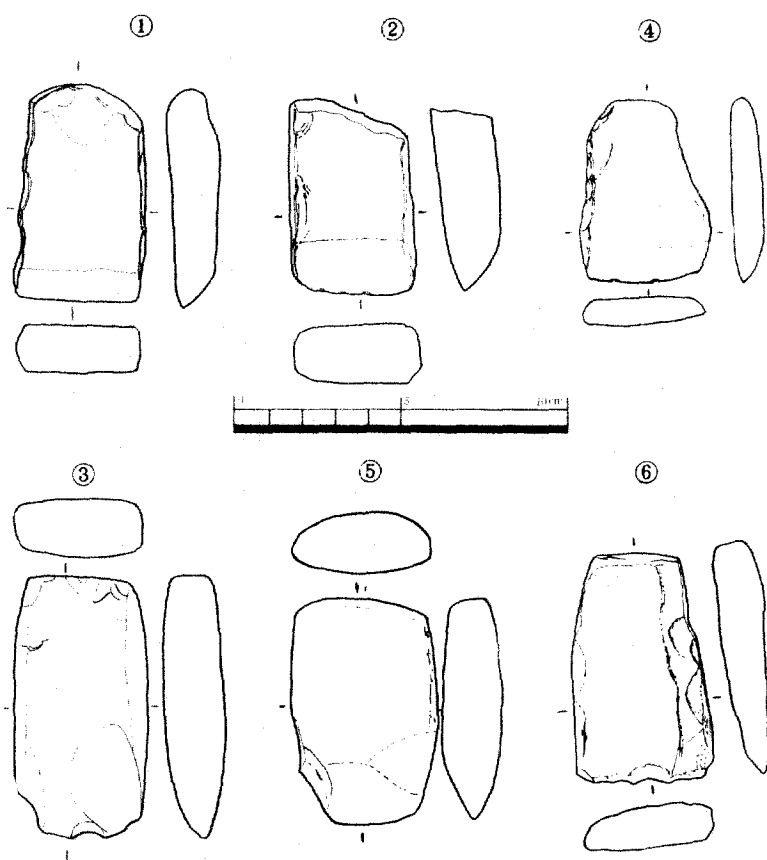


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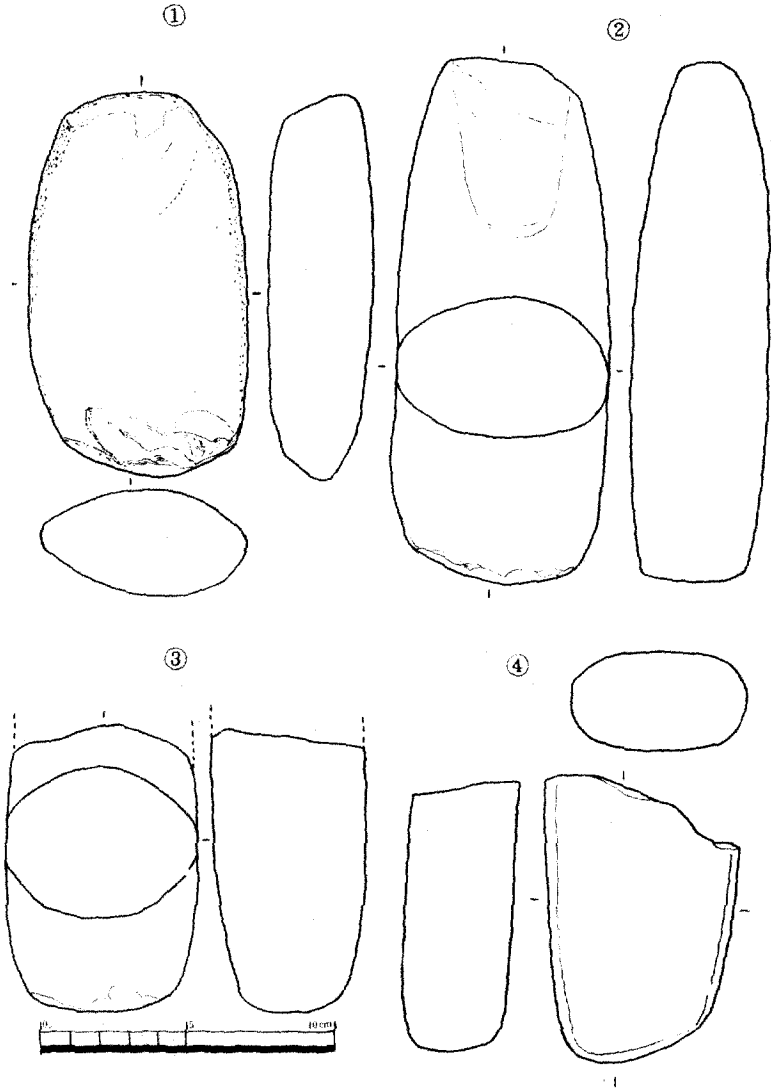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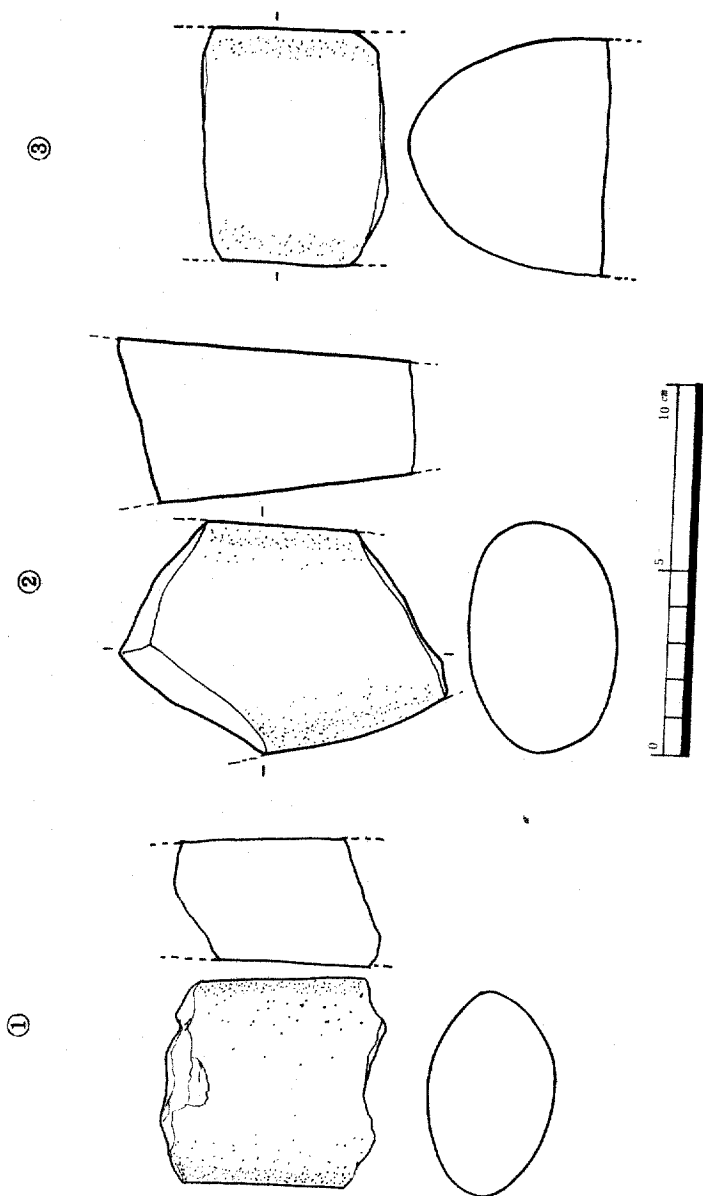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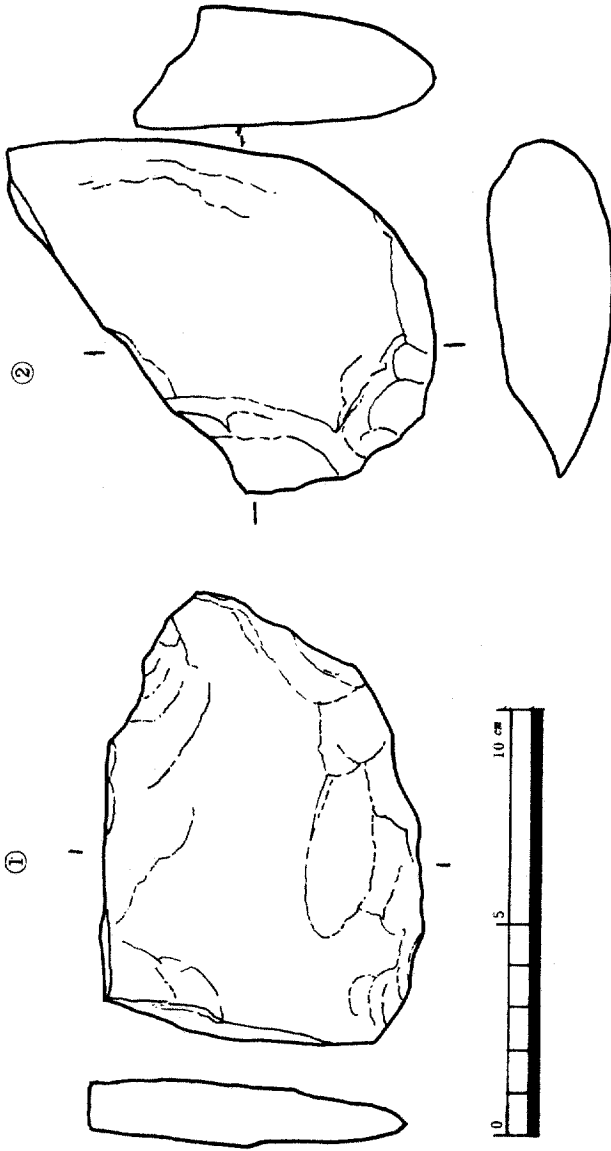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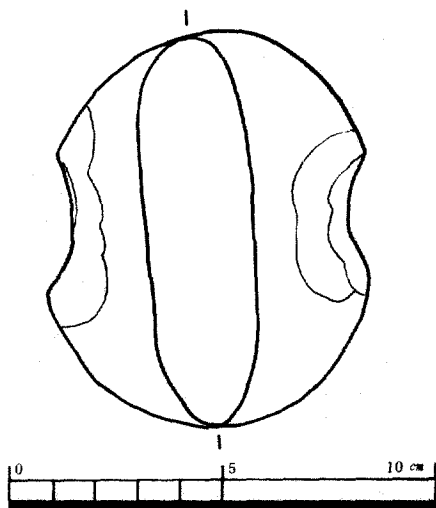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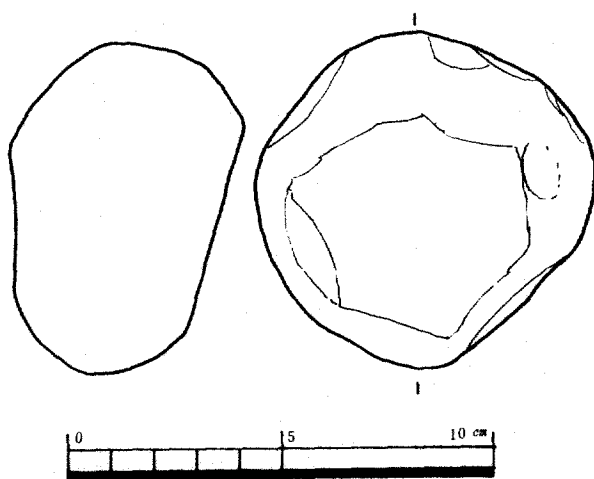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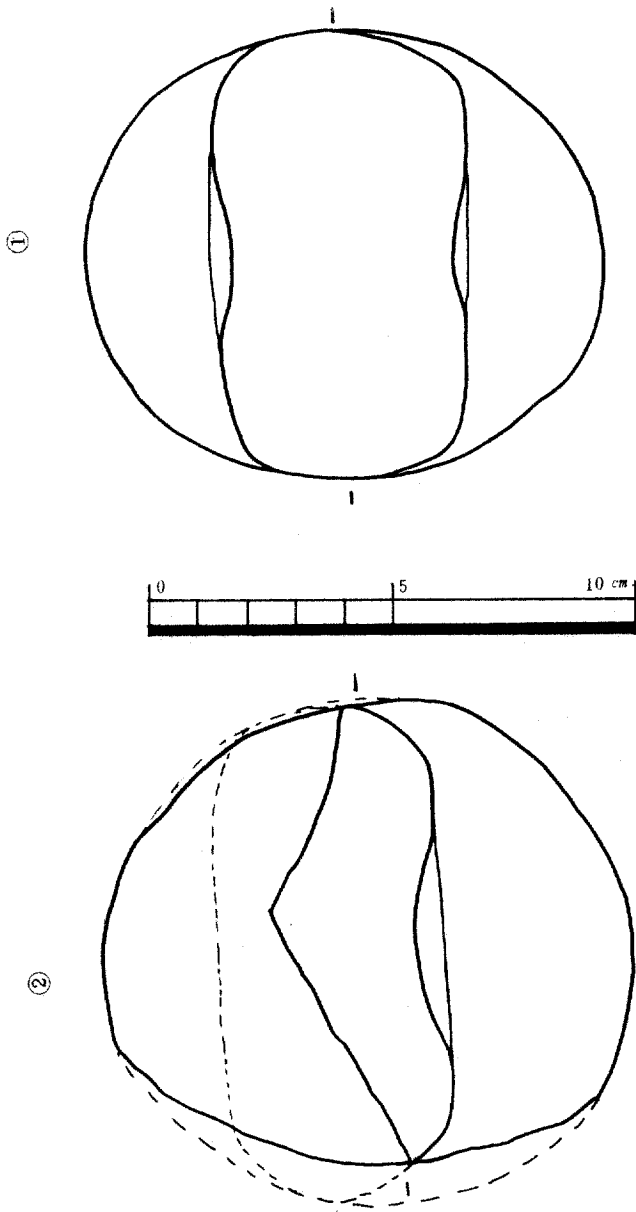


그림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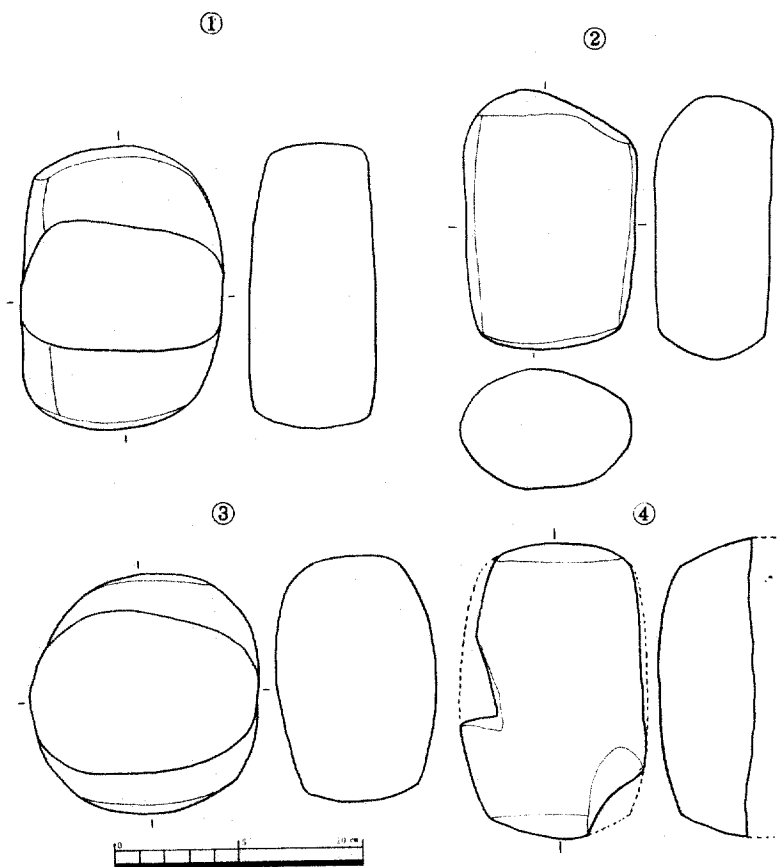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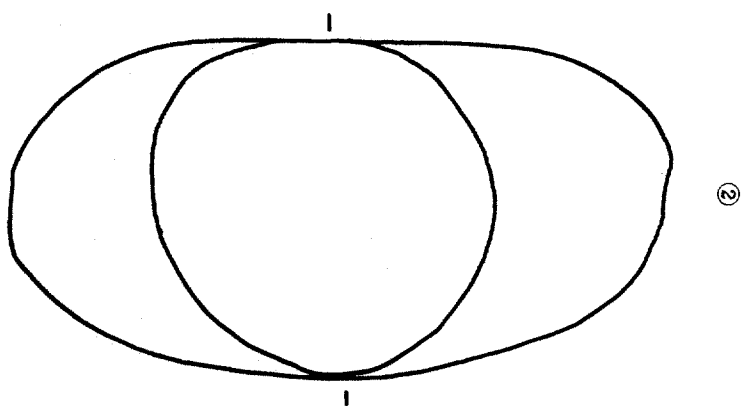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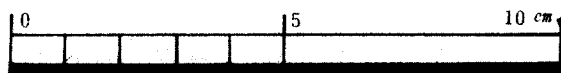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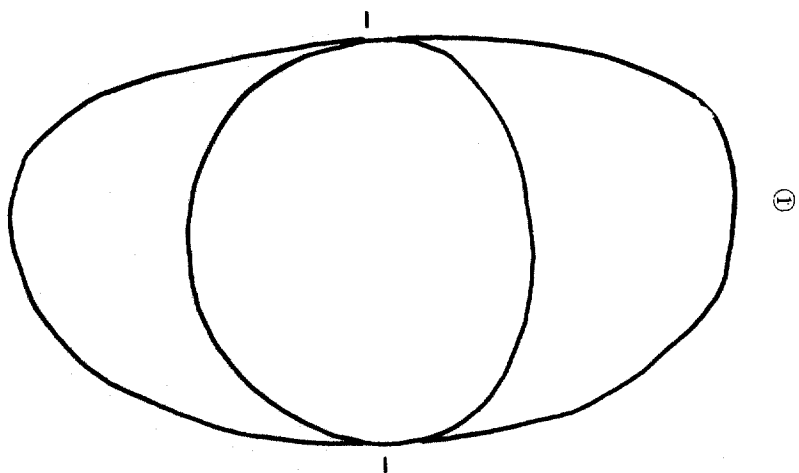


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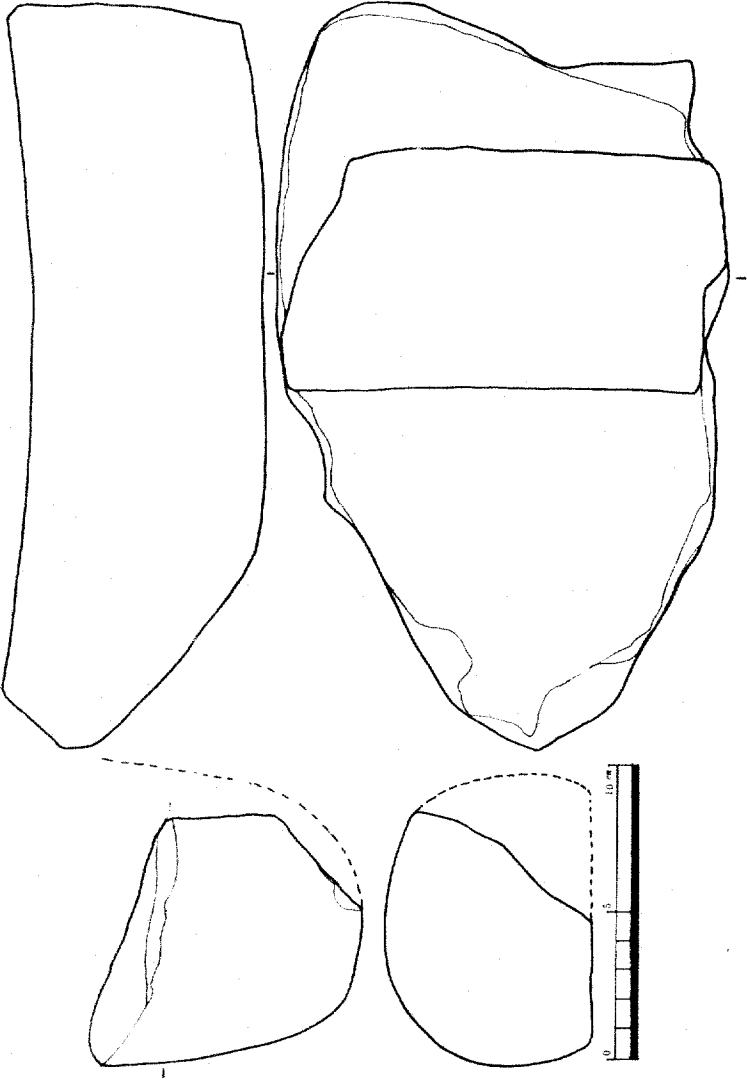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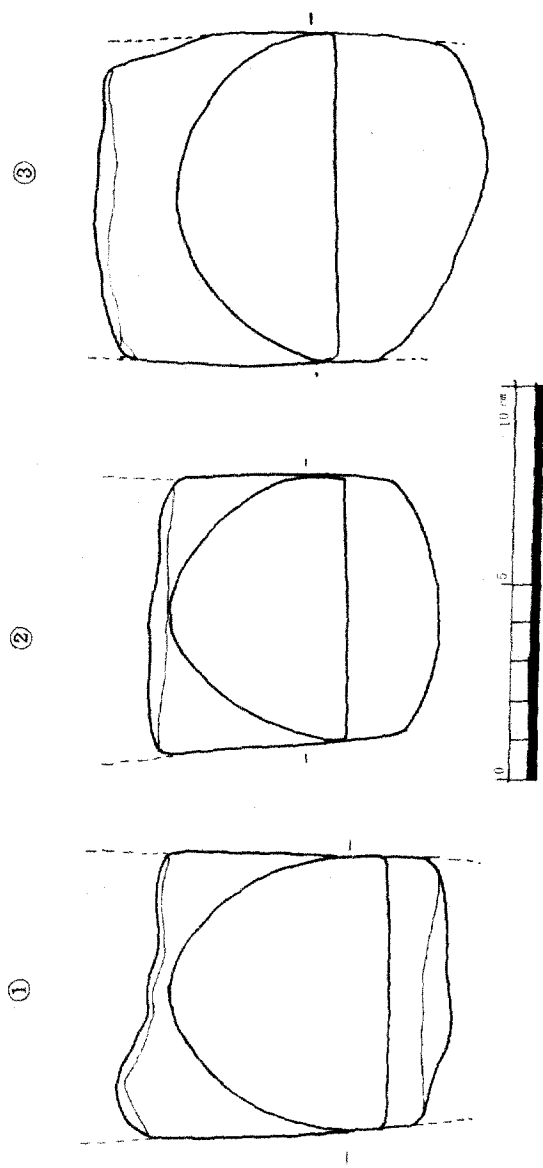


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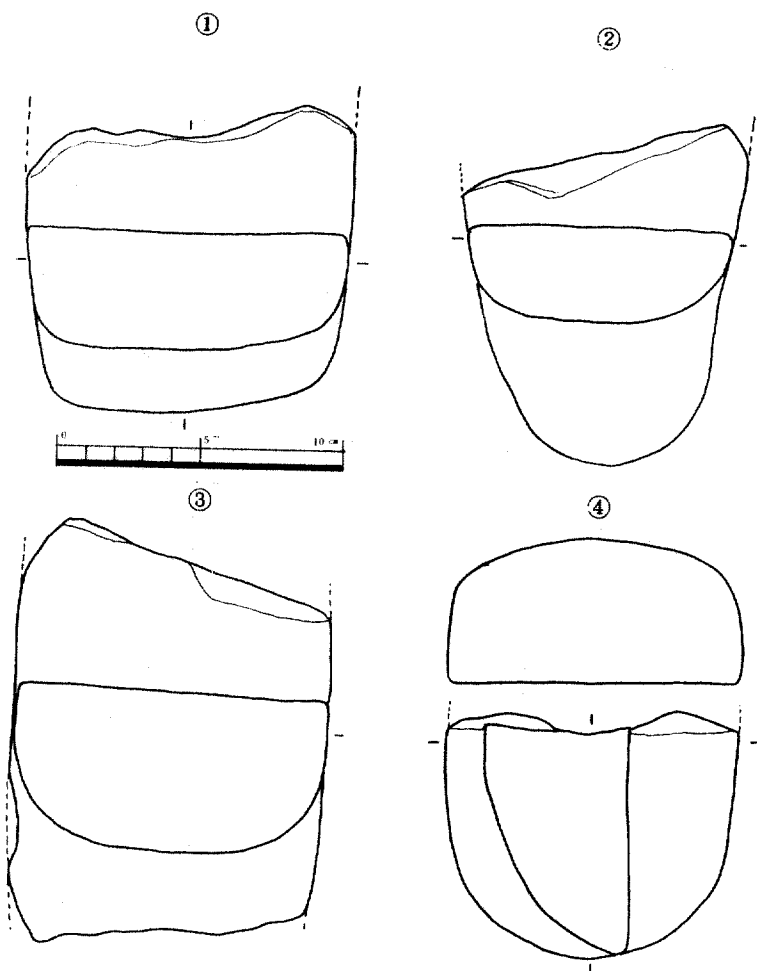


그림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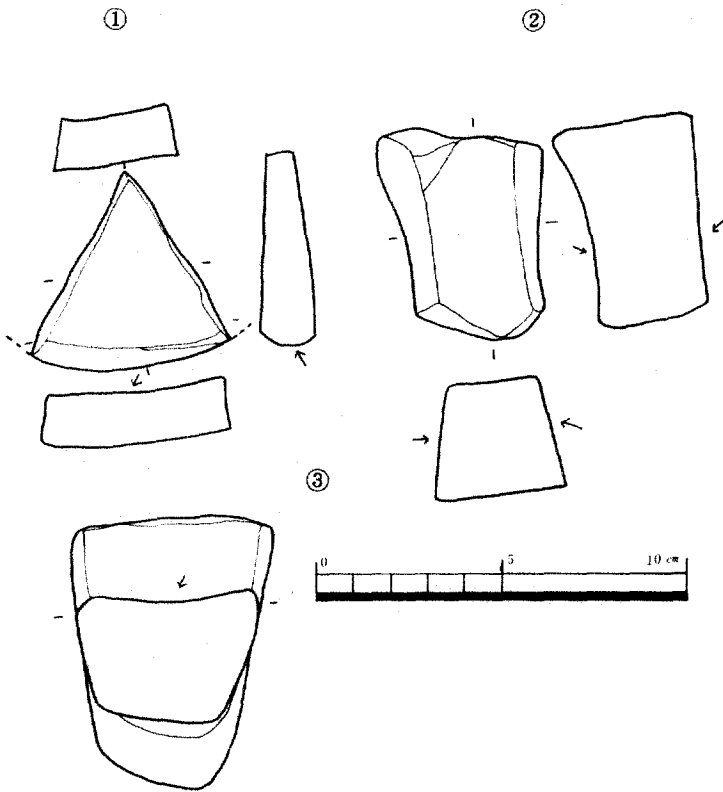


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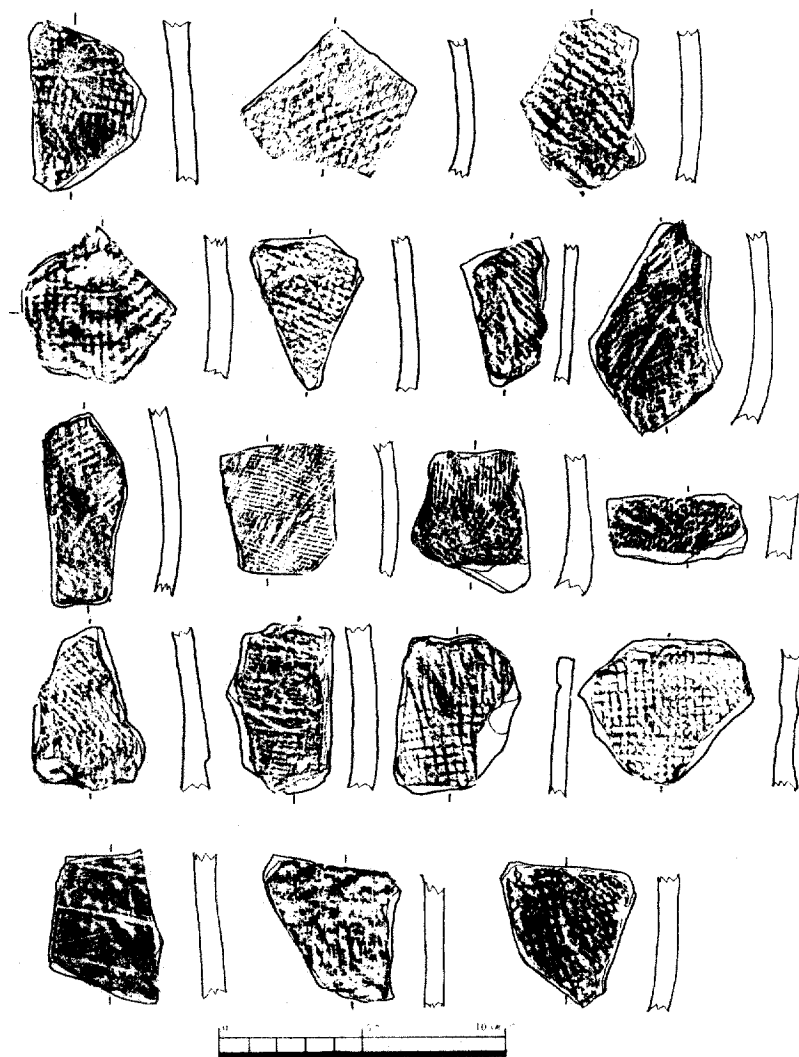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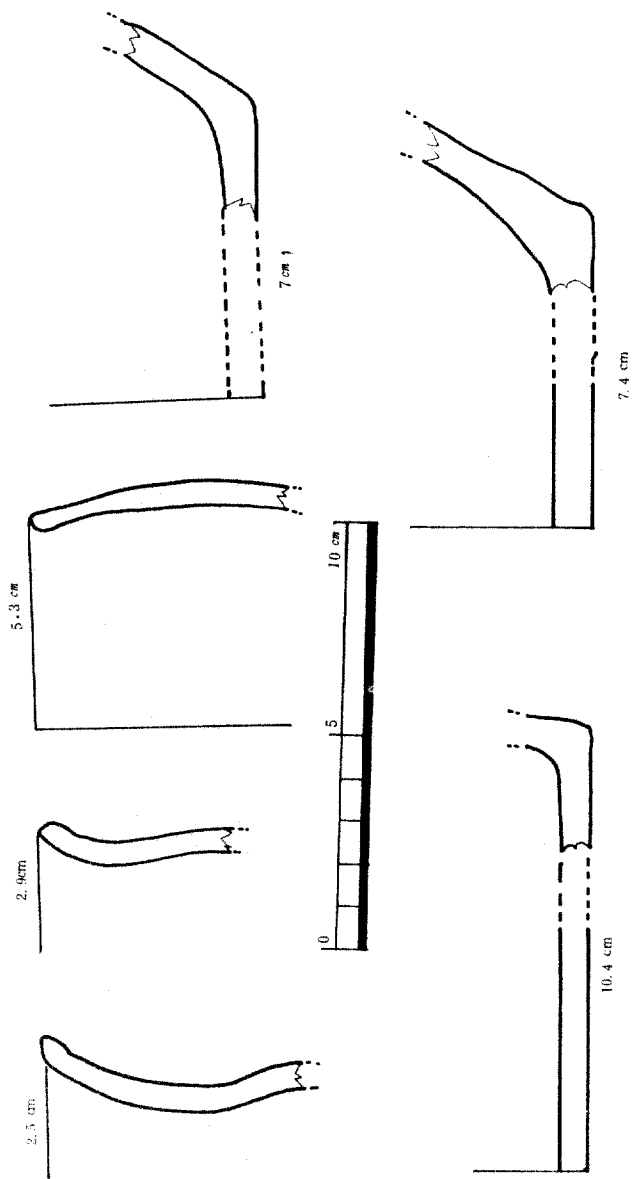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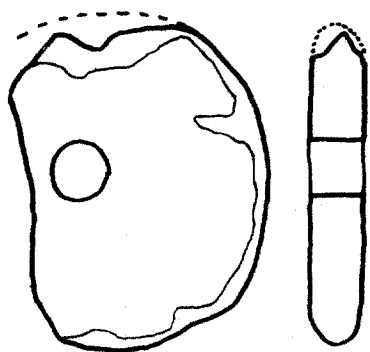


그림 22



두께 9 cm

직경 5.5



그림 23

